

# 차분한 책잔치로 외형보다 '내실'

## '97 서울국제도서전 열려 ... '책, 우리의 미래' 주제로 5일간

'97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5일부터 5일간 서울 강남 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책, 우리의 미래'란 큰 주제 아래 열린 제36회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후원했다. 국제도서전으로 격상 개최된 지 올해로 세번째 맞이하는 이번 도서전은 전시면적 3천평 규모에 국내 1100여사, 외국 18개국 400여사가 총 470개 부스에 개별 또는 단체로 참가, 30여만권의 책을 출품했다.

2002년 아셈 회의장 공사관계로 전시장이 축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40부스가 줄어든 셈. 국내에서는 고려원·민음사·문학동네·창작과비평사·한길사·해냄 등 단행본 출판사와 금성출판사·계몽사·예림당길벗 등 아동출판사가 참가했다. 국일미디어·동녘·문이당·동지·열림원·열린책들 등 14개사가 문화유동부스의 합동부스로 참가했으며, 한국출판정보통신·한국도서보급(주)·학습자료협회·어린이도서연구회 등 단체에서도 참가했다. 외국은 영국·이탈리아문화원과 인도·태국출판협회,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 등 단체와 스페인의 파라몽, 일본의 고단샤, 프랑스의 우니 프레스, 미국의 와일리 앤 슌즈 등 개별출판사 400여사가 참여했다.

### 실속 있는 '알뜰' 전시

첫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개막식은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해 고건 국무총리,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정진숙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등 출판계 인사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막이 올랐다. '전문인의 날'이기도 한 첫날에는 페레 비슨(스페인) 국제출판협회 회장과 쿠즈모프(프랑스) 국제출판협회 사무총장, 타카오 와타나베 일본서적출판협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한 축하 리셉션도 가졌다.

이번 도서전은 몇가지 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우선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하겠다는 주최측의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책 판매시장'의 성격에서 벗어나 '책권본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것. 활발한 저작권 거

**'97 서울국제도서전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아동도서관을 따로 배치해 부스 성격이 확연히 구분 됐고, 외형적 규모보다는 실속있는 알뜰 전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출판 창립 50주년과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한글 글자꼴 변천 6백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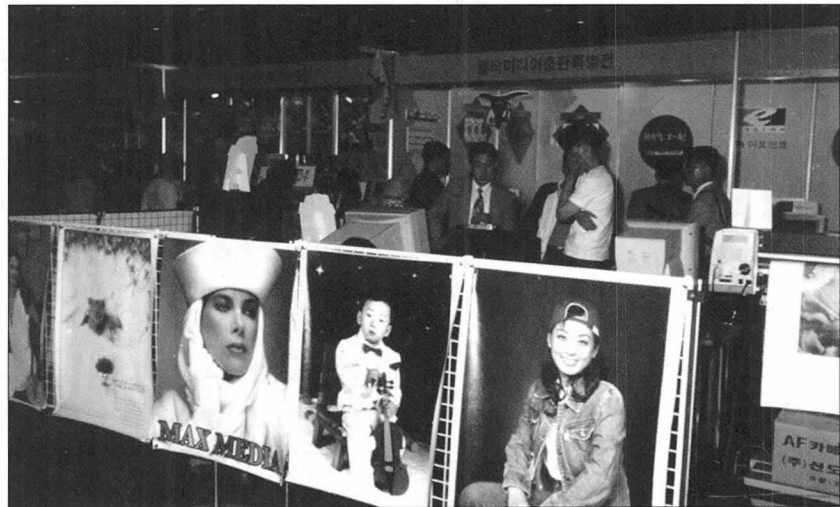
래와 상담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쓴 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도서전 때마다 지적돼 오던 지나친 소음과 장터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멀티 큐브와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도 7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소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둘째, 이제까지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부스를 분리하지 않아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도서관을 입구 왼쪽으로 한데 모아 부스 성격을 확연히 구분지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도서전'의 이름에 걸맞도록 입구에 가깝게 외국사 부스를 배치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셋째는 출판사마다 부스를 소형화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전시장이 외형적 규모를 중시하여 사세를 과시하는 홍보 이미지에 주력했다면, 이번 도서전은 외형보다는 실속 있는 알뜰한 전시판매를 유도하겠다는 출판사의 의지가 엿보였다. 이는 몇년째 계속되는 출판계 불황의 여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다.

이같은 '알뜰 전시회'의 성격은 특별기획전에서도 드러났다. 가지수를 늘리기보다는 <한글 글자꼴 변천 6백년> <멀티미디어 출판특별전> <교보 문학카페> 등 세가지로 압축, 질 높은 특별전을 제공했다.

이번 특별전의 하이라이트는 출판 창립 50주년과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한글 글자꼴 변천 6백년>전. 모두 7개 부스로 나눠 한글창제 초기의 <훈민정음 해례>(1446)부터 해방 이후 <조선말 큰사전>(1947) 첫권이 나올 때까지 5백년 동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PC에 구현, 출력해보면 '디지털 이미지 쇼'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온 책자 80여점을 통해 한글 글자꼴의 변천과정을 보여줘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한글창제 초기에 찍은 <훈민정음 해례>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등에서 보여준 단순명쾌한 글자꼴은 오히려 현대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임진왜란 전후 시기에 <맹자언해> <여사서> 등에서는 붓글씨 성격이 강하고 균형감 높은 한글 활자를 볼 수 있었다. 또 관람객들은 한글 붓글씨가 고유하고 완성된 글자꼴 양식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초기의 <도산육곡기> <부훈책> 같은 책자에서부터 <여인관상 보는 책>의 거친 글자꼴 과정을 거쳐 <참선문>(숙종)과 같은 전형적인 궁체로 확립되면서 <규중향어>에서 보이는 흘림체의 성격으로까지 발전됐음을 엿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특별전을 통해 전시된 보물 398호 <월인천강지곡>(상 1-7),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1-4)에는 일반인과 전문인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멀티미디어 출판> 특별전은 정보시대에 독자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었다. 서울시스템, 세광데이터테크, 엔터프라이즈 골든칩, 웅진미디어, 이포인트, 영컴프라자, 박문각, 소프트매직, 친구미디어 등 9개 업체가 참가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의 현단계를 보여줬다.

탁상전자출판(DTP)의 과정을 실연, 출판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는가 하면 방대한 실록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CD롬, 일반도서를 다운로드 해서 보게 한 <스크린 북> 등 학습·어학용 CD롬이 전시됐다. 전시된 CD롬은 30대 가량의 PC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실연해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



어린이들의 인기를 끈 만화가 사인회.

를 이용해서 PC에 구현, 프린트로 출력해 보여준 '디지털 이미징쇼'는 멀티미디어 시대 출판환경의 급격한 변화상을 실감케 해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문학카페〉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처음으로 서점업계로서 교보문고가 참가,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첫날 《세계건축기행》의 저자 김석철씨를 비롯해 둘째날 《우리문화의 수수께끼》의 저자 주강현씨, 그리고 작가 이순원·이인화·조정래·고은·김홍신·최인호 등을 초청, 차와 음악이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자와 대화'를 나눴다. 또 이복영·박종관·이현세·강진호·이만수 등 만화가들도 직접 독자에게 캐릭터를 그려 주었다.

#### 개별 출판사의 작은 이벤트도 눈길

특별전 운영과 별도로 개별 출판사의 자그마한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사계절이 《역사신문》 완간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역사 TV 뉴스'가 독특한 '역사여행'의 시간을 제공했고, 출판사 부도로 위기에 몰렸던 고려원이 재기하면서 전시장에서의 판매수익금을 '북한동포 돕기' 기금으로 내놓아 시선을 끌었다. 또 세계사는 그동안 책을 출간한 작가들을 초청, 박완서·조세희·황현산·김정란·최승호 등 50여명이 부스에서 조촐한 카테일 파티를 갖기도 했다. 또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은 BNK 출판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BNK 서점도서안내〉와 EDI(전자거래문서교환) FAX 서비스, 표준 POS(판매서점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한편 개막 둘째날(16일)에는 '정보산업시대 출판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한 국제출판포럼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럽에서의 출판과 정보통신산업간의 협력사업 상황과 EU 관련사업 추진내역(로베르토 미니오, 국제전자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신정보망 체제에서의 출판 기능과 역할(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정보산업시대의 저작권 관련정책(디아트리치 괴츠, 독일 스프링거출판사 상무)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의 출판계 현황(아난드 부잔 인도출판협회 부회장) ▲국제출판협회의 정책 흐름(쿠츠모프, 국제출판협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번 도서전은 전체적으로 과열 없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출판 불황임에도 좋은 책을 내왔던 출판사들에겐 독자와 직접 만나고 외국출판사에 소개할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실을 기하자는 주 최측의 의도와는 별개로 일부 과다한 판촉전은 여전히 계속됐고, '국제도서전'의 명성을 얻기에는 아직도 참여국과 참가사들이 제한적이었다. 국내 유수의 출판사들이 대거 불참한 것도 도서전의 이름을 퇴색케 한 요소였다. 서울국제도서전이 명실상부한 '국제건본시장'으로 자리하려면 전시회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야 할는지 출판계 모두의 발언이 모아져야 할 때인 듯싶다.

— 김지원 기자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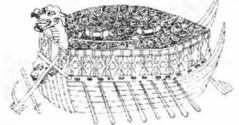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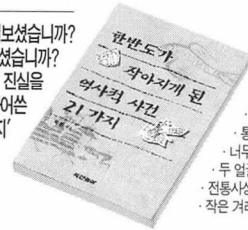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기까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젠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박 현 지음 / 7,000원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꼭 찬 조건의 금서목록
- 작은 거재를 고백하는 까닭 등...

술술 읽으면 씩씩 들어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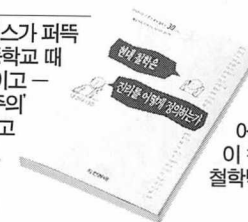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안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남 경태 지음 / 6,800원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